

"아리셀 투쟁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 박순관 무릎꿇게 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10.30 07:39

'에스코넥이 책임져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촉구대회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을 맞은 이날까지 유가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이다. 사진=송승현

6월 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단일한 사고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게 된 참사이자, 국내 화학업계에서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최악의 산업재해다. 이날 참사 이후 128일이 지난 오늘도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사과를 포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고,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비롯한 군납비리 정황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외면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대표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 참사의 진상규명,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섭 또한 열리지 않고 있다. 참사 당시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박순관 경영책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앞 길거리에서 노숙에 가까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아침 팽과리를 치며 투쟁을 시작하는데, 팽과리 채가 부러진지가 이미 수 번이다.

아리셀 참사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가 모였다. '에스코넥이 책임져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촉구대회가 200여 명의 참석 속에서 29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에스코넥 앞에서 열렸다. 에스코넥은 결의대회가 열리는 29일 에스코넥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농성이 시작되고 난 뒤, 에스코넥 직원들은 농성장이 설치된 정문으로 출퇴근하는 대신, 사다리를 타고 타 사업장으로 넘나들고 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결의대회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여는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박순관 대표이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기도 아까워했으면서 참사 이후 돈을 처발라 김앤장 로펌을 선임해하고, 아리셀 참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있다"고 일갈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족들은 꿈속에 나온 희생자들에게 그 문을 열고 나오라고 절규하다가 깬다.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박순관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죄를 덮으려 아들마저 내세운다"고 분노하며 가슴을 쳤다.

더해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계속 배를 불러왔던 박순관으로부터 어떤 진정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이 부위원장은 "아리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죽지않고 일할권리 쟁취하고, 반드시 투쟁으로 만들자"고 외쳤다.

양한웅 아리셀참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크고 작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해마다 있어왔다. 그런 죽음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폭발 화염 속에 잃어버린 아리셀 노동자 23명, 이주노동자 18명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 현주소 어디있는지 똑똑히 드러난 사건이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전혀 없는 한국사회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한 뒤, 박순관 대표이사를 향해 "단 한번도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 짐승같은 자"라고 분노했다.

양 대표는 "전국에 오신 동지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있는 추모집회, 매주 화요일 있는 삼성 거래중단 촉구 추모집회에 자주자주 와주시는 것이 가족을 지키고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정들 앞에 보답하는 길이 생각된다.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같이 연대해 싸워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발언 중이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진=송승현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한꺼번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숨진 대규모 참사가 4개월 넘도록 어떤 해결도 보지 못하는게 말이되는가" 분개하면서 "이주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아무 책임도 지지않아도 되는것이나. 우리는 돈 몇 푼 줄테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박순관과 에스코넥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박순관은 아리셀 공장과 함께 진실도 타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 유족들은 몸을 일으키고,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연대의 손을 내밀어 오늘까지 왔다"면서 "우리의 투쟁으로 박순관을 구속했다. 그가 저지른 불법과 살인 행위를 생각하면 아직 부족하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비상구는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심어리게 사과하는 것이다. 동지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속하자"고 했다.

유족들 전체가 무대에 올라 투쟁발언했다. 유족들은 그간의 투쟁 경과를 전한 뒤 "에스코넥의 경영진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그리고 이러한 참사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투쟁할 것이다. 여기 연대해주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다짐을 할 수 있고 결의하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시다. 많은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밖에도 결의대회에서는 이용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지민주·류금신 민중가수의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오프오피스를 행진하며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행진 이후에는 다시 에스노코넥 앞에서 상징의식이 있었다.

집회 중반이 지나가던 즈음, 약한 비가 잠시 오더니 이내 뚜렷한 무지개가 집회현장 위로 떠올랐다.

사회를 보던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이렇게 말했다. "일곱 빛깔 무지개가 완전히 떴습니다. 아리셀 참사 피해 유족들이 홀로 피눈물 흘리지 않게 동지들이 만나는 날, 마치 저 무지개가 우리 투쟁 승리의 무지개 같습니다. 동지들! 우리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합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을 맞은 이날까지 유가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을 맞은 이날까지 유가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이다. 사진=송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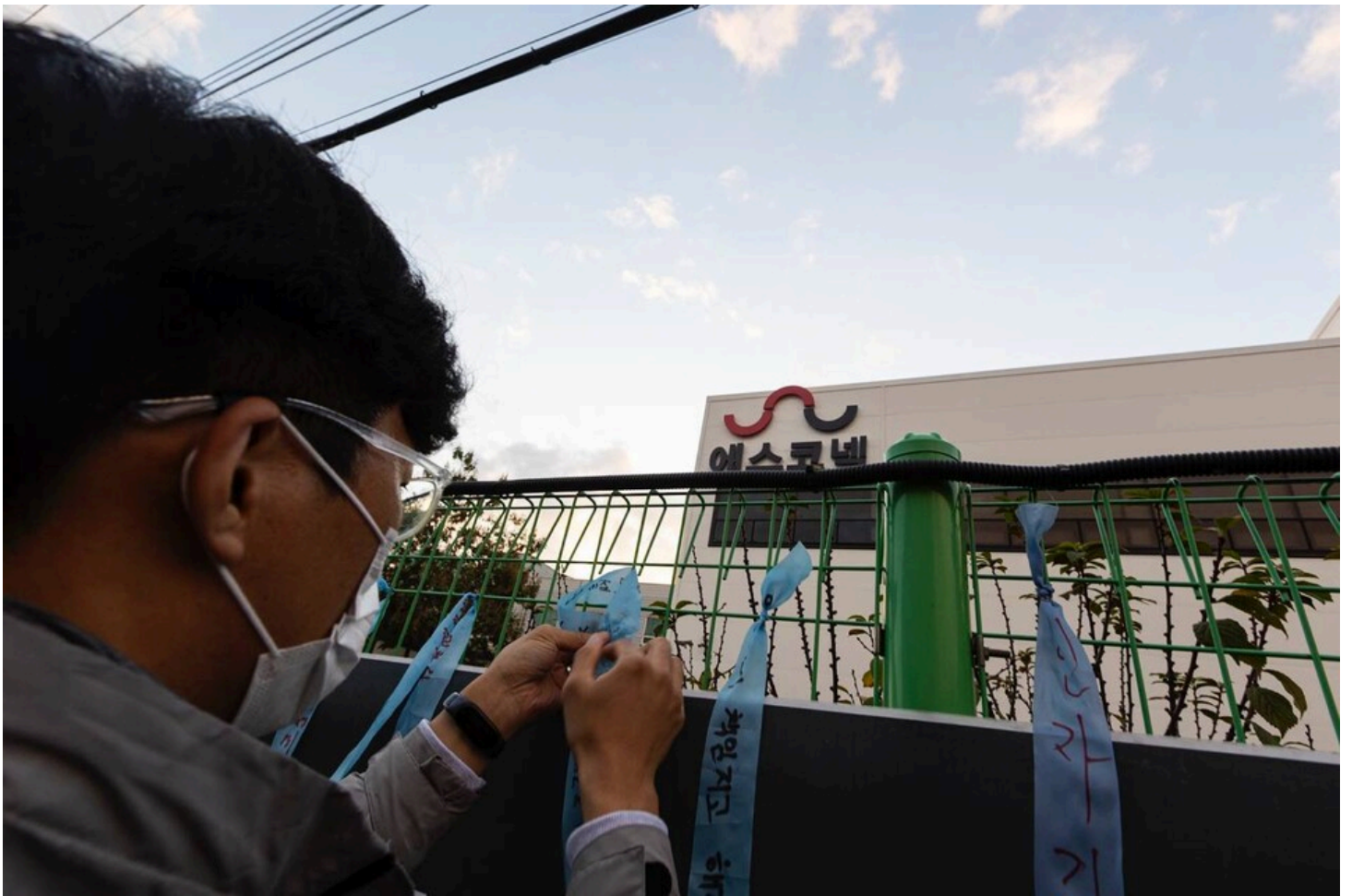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을 맞은 이날까지 유가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이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28일을 맞은 이날까지 유가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이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무대 앞에 나선 유가족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촉구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에스코넥 본사 철조망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쓴 하늘색 리본을 달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교섭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